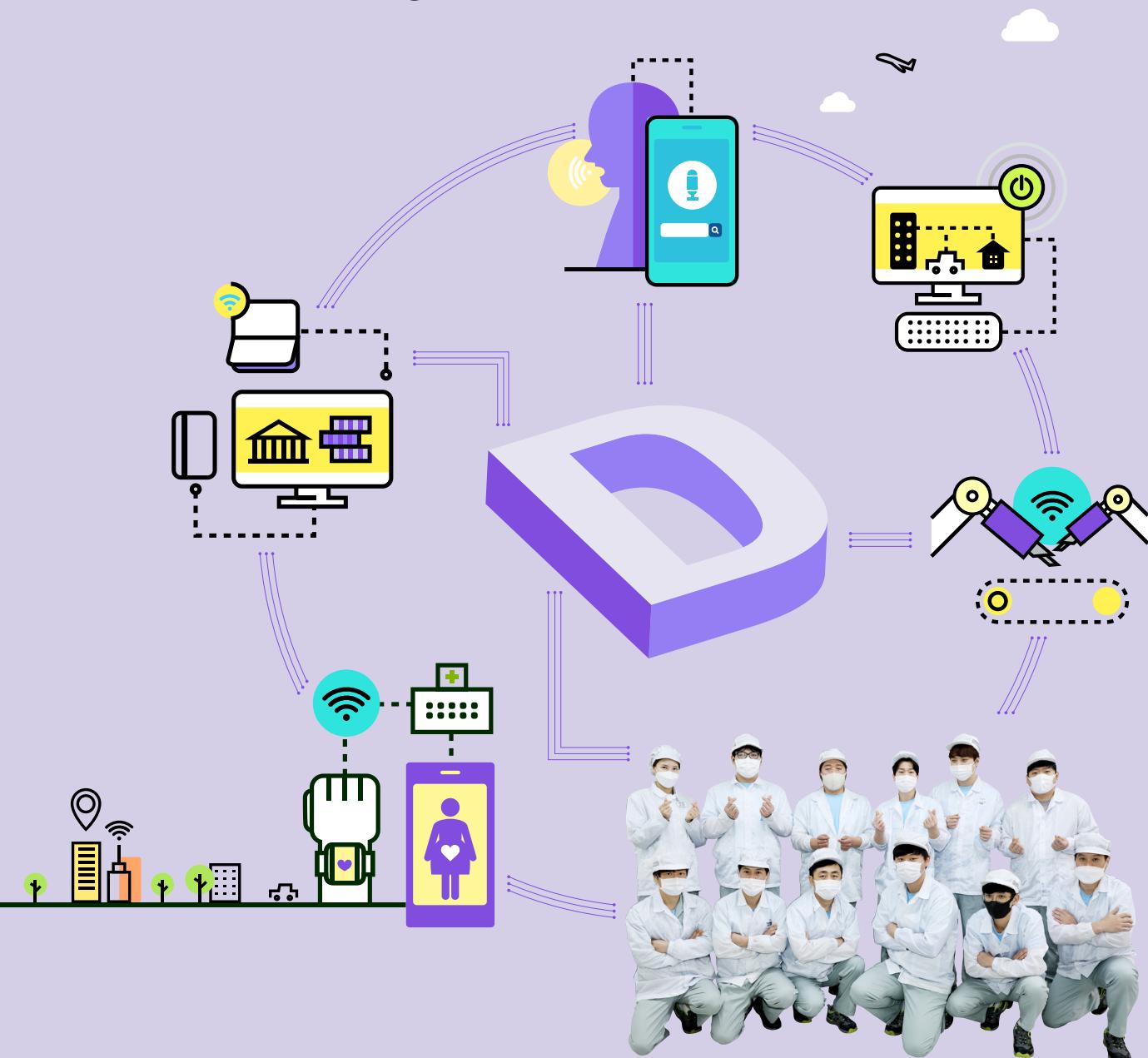


사람과 기술, 대덕과 사람

DAEDUCK Story

소식지 대덕스토리 11월호 Vol. 32



10월 품질혁신 최우수공정 MLB PSR공정



발행일 2021년 11월 3일
Publish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30
관리팀 총무그룹
Editor 채지혜
T.031-8040-0649 F.031-8040-8082

- | CEO 메시지
- | 대덕뉴스
- | 추천도서
- | 슬기로운 대덕생활
- | 2021년을 보내며
- | 대덕으로 가는 길
- | 어디까지 가봤니?
- | 건강한 내일

디자인 귀기울

www.daeduck.com



대화/업무를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소통



구체적 vs 추상적

상대방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구체적인 동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기준 안내와 업무 내용 전달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전달합니다.

일상적 vs 일시적

보여주기식(일시적)보다는 꾸준함(일상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타적 vs 이기적

나와 내 부서의 입장만 생각하기 보다
회사 전체를 바라보며 협력하는 이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표현, 이타적인 마음,
일상적인 습관화로 일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최우수상

TCR본부 MLB제조센터 PSR공정



우수상

TCR본부 MLB제조센터 이미지공정

2021 KPCA쇼

1

지난 10월 6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KPCA쇼(국제전자회로 및 실장산업전)가 열렸다. 우리회사도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참가하여 당사의 제품을 여러 고객들에 알리며 의의를 가졌다. 이날 진행한 개막식에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 전자 기술연구원장, 한국 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장, 당사의 신영환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개막식 후 이어진 리셉션에는 한국 전자 사업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공로상엔 신영환 대표이사, 전자회로 산업발전 유정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연구소 개발센터 오화동 센터장, KPCA 산업인상엔 FC BSI그룹 정우용PL이 수상했다.

사무 근로시간 변경

2

11월 1일부터 사무직 근로시간이 변경 되었다. 자유롭고 유연한 근무시간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8시 출근 시 17시 30분 퇴근을 기준으로 10시와 3시에 쉬는시간이 15분씩 있었는데. 현재는 두번의 쉬는시간을 없애고 30분을 앞당겨 17시 퇴근으로 변경 된 것이다. 2019년 한양대학교의 '근로시간 단축이 직원의 동기부여, 직무몰입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동기부여가 직무 몰입,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회사 역시, 앞으로 임직원들의 높은 업무 집중도와 개인 워라밸의 조화를 기대한다.

| 추천도서



추천이유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녕하지 못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마음 돌봄의 기술'을 전하는 책이라고 느꼈습니다.

연구소 Back-end팀 김민성 팀장이 추천하는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

김혜령 저/ 가나출판사/ 2020.07.03

많은 사람이 마음의 문제로 고민한다. 타인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라고 하지만 SNS로 인해 우리는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매일매일 접하며 지낸다. 비교가 일상이 되었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만큼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은 채 쫓기듯 살아가고 있다. 힘을 내보자 다짐해도 내 의지와 달리 자꾸만 흔들리고 쪼그라드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진다. 그리곤 이런 말을 한다.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게 내 마음인 거 같다”라고. 걸핏하면 주저앉는 마음 때문에 고민하며 ‘왜 내 것인데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다는 김혜령 저자는 이런 문제가 모두 마음의 통제권을 빼앗긴 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 마음 사용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진화론과 뇌과학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이 산만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뇌를 조련하는 방식으로써 마음 챙김의 태도를 삶에 적용하여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자아를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읽고 저자가 알려주는 대로 한 걸음 물러서서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2021년과 2022년의 사이에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다고 싱숭생숭해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희망찬 신년 계획을 세운 지 얼마나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별써 2021년 11월이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2021년을 돌아보는 때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목표에 다가 갔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매년 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드 코로나'로 또 한 번 크게 변화할 2022년을 맞이하며
2021년을 보람차게 마무리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2021년, 나의 열두 달은?

작년 12월 즈음부터 올해 초까지 많은 이들이 나름의 연간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자, 이제 그 계획표를 꺼내볼 시간이 왔다. 2021년 일간, 월간, 연간 계획표를 꺼내어 목표 달성을 계산해보자. 100% 완료한 계획이 있다면 뿌듯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칭찬과 선물을 주도록 하자.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있다면 어떤 요소 때문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2022년에 다시 도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변동성이 많은 한 해였던 만큼 성취 여부에 너무 연연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지키려는 마음과 노력이니까.

작심삼일에 맞는 목표 세우기

지금부터 내년 1월에 이르는 두세 달의 짧은 시간 안에 해볼 계획을 세워 하나씩 목표를 달성을 보자. 꼭 거창하거나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도 좋다. 스스로에게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자. 매일

운동하는 습관,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처럼 작은 목표라도 계속해서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1년간 책을 너무 등한시했다면 만화책이라도 독파를 목표로 읽어보자. 미뤄뒀던 OTT(Over The Top), 넷플릭스나 왓챠 등과 같이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의 드라마 시리즈 정주행도 완료하고 나면 뿌듯한 기록이 될 것이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 폰 보지 않기와 같이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하는 것도 좋겠다. 건강을 위한 절주나 절식 계획도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짧게 실행할 수 있는 목표들을 적어두고 하나씩 순서대로 해보자.

'위드 코로나' 라이프에 대비하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우리 삶 속에 코로나 19의 그림자 또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발표들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과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이다. 아직

마스크를 벗기엔 이르지만, 갑갑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백신 접종자에 한해 국경을 개방하는 나라들도 속속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치여 포기했던 소소한 일상들을 기억해보자. 퇴근 후의 맥주 한잔, 선선한 날씨에 걷다가 만나는 거리 공연들, 기차 타고 떠나던 여행, 긴 연휴면 설레는 마음으로 예약했던 비행기 티켓 등 '코로나19만 사라지면...'이라고 되뇌며 놀러 왔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꿈꿀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아직은 너무도 조심스러운 때이지만, 마침내 자유로운 시절이 다시 왔을 때 잊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굿바이 코로나 플랜'을 짜보자. 코로나19로 항상 다음을 기약했던 계획들을 실현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하는 마음이 설렐 것이다.

*참고 자료 _ 직장 생활 정리 플래너(레지나 리즈 저),
내 삶을 바꾸는 52주의 기록(셰릴 리차드슨저),
아시아경제 '위드코로나 기대에
다시 오프라인 강화하는 유통가'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다고요?

2021년을 마무리 하는 대덕전자 사우들에게 던지는 질문

새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이 다가오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간 2021년이었다.

그 쏟 살 같은 시간 안에서 누군가는 아쉬움이 남았을 것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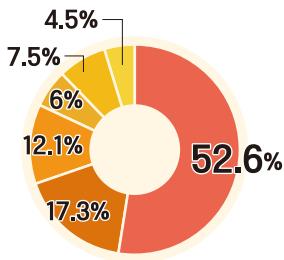
누군가는 목표의 일부를 이루었을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을 것이다.

올 한해,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고 얼마큼 목표를 달성했으며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대덕스토리가 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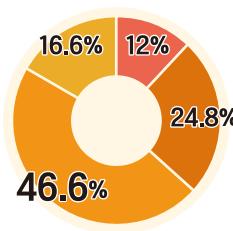
*설문조사에는 총 133명의 대덕인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01 올해 다짐했던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 ① 건강관리(다이어트, 운동, 금연 등) 52.6%
- ② 재테크 17.3%
- ③ 자기계발 12.1%
- ④ 여행 6%
- ⑤ 특별한 목표는 없었다 7.5%
- ⑥ 기타 4.5%

02 을 초부터 현재까지 목표를 얼마큼 달성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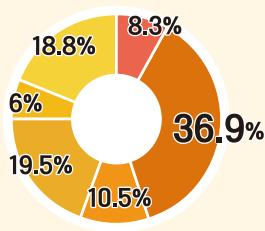


- ① 완벽하게 달성했다 12%
- ② 비교적 잘했다 24.8%
- ③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46.6%
- ④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 16.6%

03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면? (주관식)

- 극단적으로 실행한다(자기합리화 또는 핑계를 없앤다)
- 인내와 성실함
- 남들도 다 하는 것, 나라고 못할 것 없지!
- 하루에 10번 이상, 생각 날 때마다 목표를 다짐한다
- 포기하지 않는 집념
- 지키지 않아 후회할 날들 상상하기
-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 일단 한 발 들여놓고 본다 등

04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너무 높은 목표를 정했다 8.3%
- ② 의지 박약! 나의 태함 때문이다 36.9%
- ③ 일이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었다 10.5%
- ④ 하고 싶었지만 주변 상황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 19.5%
- ⑤ 기타 6%
- ⑥ 무응답 18.8%

05 2021년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건강/코로나 백신/코로나-모든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림/코로나 거리두기/이직으로 인한 제2의 인생/대덕전자(올해 취업한 첫 회사이기 때문)/출산/캠핑/자율출퇴근 시행/결혼 등. 물론 '코로나'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었다.

06 2022년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다이어트/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활동적으로 사는 것/가족 모두의 건강/일상으로의 복귀/내집마련/로또 당첨/코로나 종식/코로나 치료제의 개발/나 자신의 성장/업무 더 잘하기/결혼/해외 여행/MS센터의 PKG 제품 정착 등

육아휴직 후 복직, 새로운 기분의 출근길!

FC제조관리그룹 이지나 TL의 출근길



출근 준비 중, 날씨 점검을 한다. 오늘은 날
이 좋아서 기분이 좋다. 전날 둘려 둔
식기세척기에서 아기 어린이집 준
비물을 챙긴다. 식기세척기 펑!



아기는 대부분 자고 있는데, 사진
을 찍기 위해 조명을 켰더니 깨
버렸다! 안녕? 아이와 반갑게 인
사를 하며 출근길에 나선다.



출근길은 약 28km로 50분 정
도 걸린다. 산본IC로 가는 길. 해
가 떴다. 해야 안녕?



산본IC -> 서서울IC -> 서안산
IC를 이용하여 회사로 온다.
서안산IC를 통과했다. 요즘 즐겨
듣는 에스파의 신곡을 들으며 가
는 중이다. 룰루~



안산 외 지역 출퇴근자들은 대부
분 서안산IC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근은 항상 막힌다. 하지만
차 안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다 보
면 어느새 회사 도착이다.



막히는 구간을 뚫고, 운 좋게 회
사 바로 앞에 주차했다. 신난다.
근무지 B3도착. 이제 오늘 하루
도 힘내서 열일하러 출발~

| 시흥, 어디까지 가봤니?

오이도 빨간 등대만 가 보셨나요?



시흥 오이도 박물관

매일 출근하는 대덕전자. 우리에게는 '회사 가는 길'일 뿐이지만, 의외로 안산과 시흥에는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숨어 있다. 하늘 높은 늦가을 날에 그냥 지나쳤던 곳들을 둘러보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안산과 시흥 일대의 여기 저기를 소개한다.

시흥이 너무도 익숙한 우리에게는 오이도 빨간 등대와 조개구이집들, 훗집들이 먼저 떠오를지
모르지만, 오이도는 서해안 최대 패총유적지이자 다양한 신석기시대 유물을 출토지이다.
선사시대 해안생활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를 인정 받았고, 오이도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2019년에는

시흥 오이도 박물관이 개관했다.
그동안 오이도 빨간 등대와 일몰 구경만 했다면 이번 휴일엔 박물관에 가 보는 것은 어떨까?
선사시대 생활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은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관람시간 10:00~18:00(월요일 휴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어린이 체험실 10:30~12:00(1회), 13:30~15:00(2회), 15:30~17:00(3회)

관람요금 상설전시실 무료

어린이 체험실 1000원(36개월 이상 64세 이하)

문 의 031-380-5315

겨울철 감기 예방법

독감과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감기,
미리미리 예방하자!



급격한 온도 변화 피하기!



큰 일교차 주의하기!



손, 발 깨끗이 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숙면!

독감과 코로나는 면역력 싸움



규칙적인
운동(실내운동)하기



면역력에 도움되는 식품
골고루 섭취하기



개인위생에 힘쓰기

코로나 백신 접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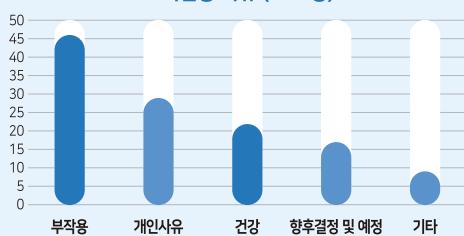
임직원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2021.10.26 기준)

근무인원	1차		2차	
	접종인원	접종율	접종인원	접종율
2445	2215	89%	1341	53%

코로나 백신 미접종 사유 (9/10 사전 조사)

미접종 사유 (192명)



Quiz

32호 퀴즈

이모티콘으로 영화 제목 맞추기

1.



2.



3.



* 제 문제를 모두 맞춰야 정답으로 인정!

당첨자에게 비건립밤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사보담당자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스토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취미소개, 도서후기 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보담당자 : 총무그룹 채지혜 TL

31호 당첨자: MLB금도금 최정현

환경안전그룹 이해성

FC제조관리그룹 이지나

MLB설계그룹 권준구

BGAPSR 김수완

지난호 창립 56주년 맞이 기념 퀴즈와 정답

- 우리 제품 중 데이터센터용서버, 5G모뎀용 SOC, SSD 컨트롤러 등 고성능 시스템에 탑재 되는 비메모리용 반도체는? ③ FCBGA
- 대덕전자의 사업장이 있었던 지역이 아닌 곳은? ② 원곡동
- 우리 회사는 글로벌 경쟁을 위해 해외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연관이 없는 나라는? ③ 태국

